

C14 광발아성 잡초성벼 穀의 광휴면기간 중 형태변화

작물시험장 : 정남진*, 양원하, 이정일, 최경진, 곽강수, 강양순

서울대학교 : 백남천

Morphological Change of Hull of Photoblastic weedy rice (PBR) During Photodormant Period After Seed Imbibition

Nat'l. Crop Exp. Sta. : N.J. Chung*, W.H. Yang, J.I. Lee, K.J. Choi,

K.S. Kwak, Y.S. Kang

Seoul Nat'l. Univ. : N.C. Paek

실험목적

광발아 잡초성벼의 발아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영의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고자 함.

재료 및 방법

광발아성 벼 종자인 PBR을 흡습 후 주사전자 현미경(SEM;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, LEO 440, Leica-Zeiss, Germany)으로 표면을 관찰하고 광학현미경으로 내부 구조를 관찰하였다.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전처리는 2.5% glutaraldehyde-cacodylate-HCl 용액에 90분 이상 담근 후 phosphate buffer(pH 7.4)로 3회 세척하고, 1% osmium tetroxide 용액에 90분간 처리하였다. 그 후 탈수 시킨 시료를 critical point dryer(PELCO CPD2)를 이용하여 임계점 건조한 후 sputter coater(SC7610)에서 10nm의 두께로 gold coating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- 마른 종자 영의 외부 표면에 존재하던 minute protuberance는 광하에서 흡습 되었을 때 흔적만 남았고, 암상태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.
- 벼 종자 영의 내표피에는 기공과 inner trichome이 존재하였는데, 이들의 분포는 영의 유관속을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었으며, 유관속 중 외영의 중륵(midrib) 부위에는 기공이 없고 inner trichome만이 분포하고 있었다.
- PBR의 내표피에 마른 상태로 붙어 있는 inner trichome은 광하에서 24시간 동안 종자가 흡습되면 부풀어 올라왔으나 암상태에서 흡수시킨 종자에서는 형태 변화가 없었고, 기공은 광상태에서 흡수시킨 종자는 열려있었으나 암상태에서 흡수된 종자는 닫혀있었다.
- 암상태에서 12일간 수분을 흡수한 종자의 영 섬유조직층은 마른 종자상태보다 세포층이 2-3배 증가되었으며 섬유조직 세포의 세포벽은 그 내에 층이 형성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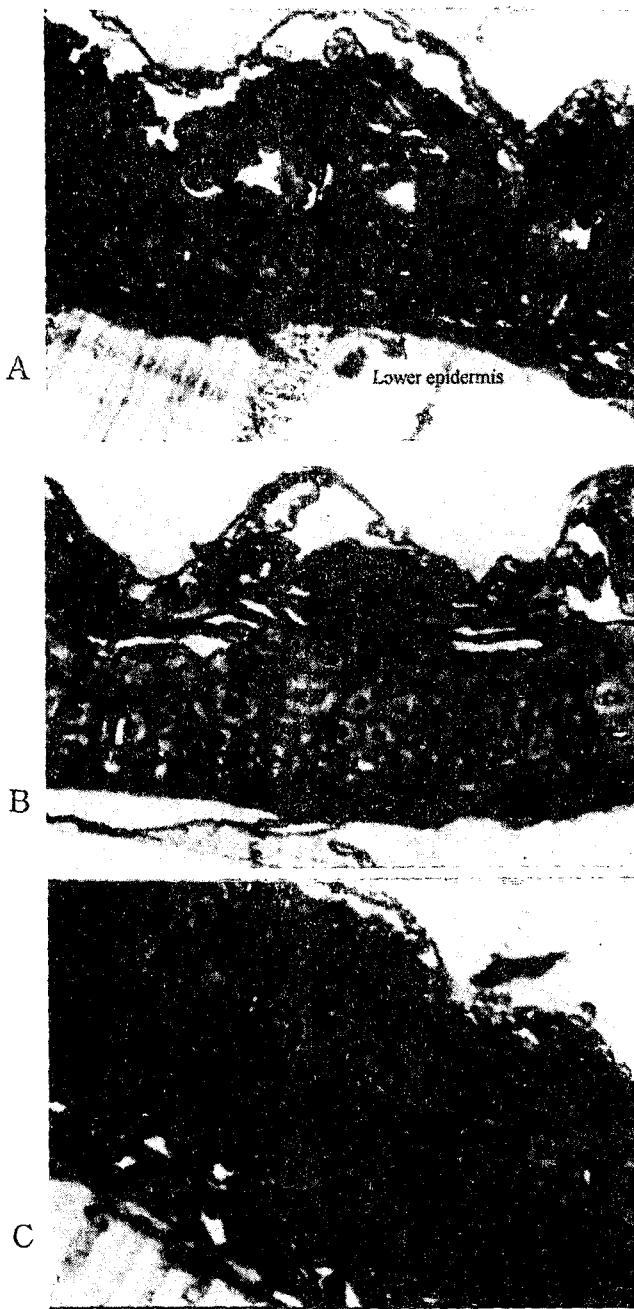


Fig. 1. Vertical section in parallel with the surface of the lemma of photoblastic rice seed (PBR).

A: Dry seed ($\times 500$),

B: Imbibed seed for 24 hr. in the dark($\times 500$),

C: Imbibed seed for 12 days in the dark($\times 500$).